文香이 흐르는 문학관을 찾아서

신동엽 문학관 전면에 내걸린 '그리운 백제정신 신동엽시인'이라는 문구. 젊은 시절 시인의 모습과 황토빛의 건물이 오버랩 돼 잔잔한 울림을 준다.

불의·부조리·허위…껍데기는 가라 외쳤던 '백제의 시인'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1〉 신동엽 문학관

백제의 옛 수도 부여 출신
1959년 신춘문예로 등단
1963년 첫 시집 '아사녀' 출간
문학정신과 역사의식의 응결지

4월 전국고교백일장·대학생 학술제
10월엔 가을문학제…수상자 낭송회

부여를 찾은 날, 바람이 찼다. 차창 밖을 때리는 바람은 속삭임이라기보다 무언가 날선 경고처럼 느껴졌다. 빛나던 산하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적요 속에 침잠해 있는 시간, 자연은 그렇게 우리에게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손짓을 한다.

차창으로 스치는 풍경은 그저 그런 익숙한 땅과 산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휑한 바람이 나부끼는 이곳은 옛 백제의 땅이다. 백제(百濟). 백제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언제나 그렇듯 애잔함이 밀물처럼 파고든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신동엽 시인(1930~1969). 그는 '백제의 시인'이다. 백제가 낳고 백제가 기른, 가장 백제의 서정과 의식을 견지했던 황토의 시인이다. 그가 없는 백제와, 백제가 없는 그를 상정할 수 없다. 서해안을 따라 달리다 보면 그 모든 땅이 백제의 숨결과 혼이며, 속살이었음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그를 떠올릴 때 절창 '껍데기는 가라'가 흘러나온다. 다른 무엇보다 '껍데기'라는 말에서 내면 깊숙이 적의를 느낀다. 도처에 산재한 '껍데기'들로 이 강토 이 산하는 오욕의 역사, 훼절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오늘의 수많은 '껍데기'들은 자신이 주인인 마냥 알맹이 행세를 하고 있다.

신동엽 시인의 고향은 충남 부여다. 1930년 8월 18일 부여에서 태어난 그는 부여초교와 전주사범학교 그리고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보령 주산 농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大地)'로 등단했다. 첫 시집 '아사녀'를 1963년 출간했으며 1964년 건국대 국문과 대학원에 입학하지만 얼마 후 그만둔다.

그해 12월 시동인지 '시단' 6집에 '껍데기는 가라'를 시작으로 1967년 장편 서사시 '금강'을 발표한다. 1969년 3월 간암 진단을 받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한달 후 서울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다.

시인의 흔적을 상상하며 가는 길, 자꾸만 백제의 고도이자 수도 사비의 옛 이름이었던 부여의 이미지가 환기된다. 부여는 백제시대 후기의 도성지로 660년 신라에 멸망할 때까지 120년간 백제의 수도(538~660)였다. 부소산성은 백제왕궁의 후원이 있던 곳으로, 방어를 위해 구축된 성이다. 부소산를 아우르는 그 산성에선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과 옛 터의 지세를 가늠할 수 있다.

언젠가 부소산성에 있는 낙화암을 찾았던 적이 있다. 벚꽃이 분분히 흩날리던 봄날의 어느 날이었다. 분분이 흩어지는 꽃잎 속에서 백제의 패망이 아른거려 눈시울이 뜨거웠었다. 널브러진 꽃잎은 아름답다기보다 처연하여 마치 삼천궁녀가 환생한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백제가 함락되던 날, 가없이 몸을 던진 삼천궁녀들의 처연한 자태가 환상처럼 떠올라 고통스러웠다. 패전국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몫은 너무도 가혹하고 치욕스러웠을 터였다. 삼천궁녀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길을 택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낙화암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 터였다.

부여읍에 자리한 신동엽문학관은 아담했다. 정밀하면서도 고적하고 모던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졌다. "그리운 백제정신 신동엽 시인"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옆에는 기타를 치고 있는 시인의 젊은 시절의 초상화가 정겹게 펼쳐져 있다. 빛나는 젊음의 한때는 시인이 살아 이곳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2015년 개관한 이곳은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했다. 곳곳에는 시정신에 부합하는 조형물을 짓기 위해 고심한 건축가의 장인정신이 녹아 있다. 문학관 저편에는 부여 출신 임옥상 화백의 '시와 깃발'이라는 작품이 설치돼 있다. 시어를 모티브로 바람에 나부끼는 장면을 형상화한 작품은 감탄사를 연발하게 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통유리로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바로 정면에 신동엽 흉상이 보인다. 조각가 심정수가 제작한 작품이다. 명민한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시인의 손에 펜이 들려 있다. 펜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촉은 창끝보다 더 예리하다.

시인의 생애가 기록된 전시실에는 유품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돼 있다. 대표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금강',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大地)' 등이 새겨진 설치판부터 각종 친필 원고, 초등학교 성적표, 다양한 서적 등은 시인의 실체를 체감하게 한다. 특히 문학관 곳곳은 시인의 아내 인병선의 인문학적 사유와 의식도 투영돼 있다. 인병선은 농경생활박물관인 짚·생활사박물관을 만든 장본인이다.

문학관 옆에는 시인의 생가가 있다. 신동엽의 부친은 군청 인근에서 대서소를 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신동엽은 젊음의 한 때를 보냈다. 마땅한 벌이가 없던 시절, 아내 인병선은 재봉틀을 생계 삼아 읍내에 양장점을 열었다. 그로인해 인병선은 졸업 1년을 남기고 서울대 철학과를 중퇴하기에 이른다. 다행히 신동엽은 그 무렵 교편을 잡았지만, 얼마 후 각혈로 휴직을 한다. 당시 갓 태어난 아기가 병에 걸릴까 염려 돼 인병선은 아기를 데리고 서울 친정으로 갔다고 한다.

걸음을 옮겨 '시인 신동엽 생가'라고 명명된 집으로 들어선다. 방금 시인이 머물렀기라도 한 듯 곳곳에서 체취가 느껴진다. 툇마루에 앉아 눈이 가는 대로 풍경을 훑어본다. 시인인 김형수 문학관장은 "신동엽은 추모되는 기억이 아니라 살아 격돌하는 현재"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신동엽 시인은 4월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매년 4월이면 전국 고교백일장, 대학생 학술제가 열린다"고 덧붙인다. 10월에는 가을문학제가 펼쳐진다. 신동엽문학상 수상작가들 중 일부를 초청해 낭송회를 갖거나 명사와의 만남을 개최하기도 한다.

부여는 의자왕을 끝으로 도읍으로서의 자존을 잃고 말았다. 백제의 도읍지를 넘어 패망의 공간으로 기호화되는 부여에서, 그럼에도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자부심이 드리워진 백제의 땅에서 모든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시인 신동엽을 생각한다. 그리고 서둘러 백제의 젖줄, 백제의 대동맥인 금강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동엽문학관에 자리한 임옥상 화백의 '시의 깃발'.

문학관 전시실에는 책·옷·친필 원고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X 핀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